

건설산업의 새로운 시도...생활·문화의 변혁을 선도한다

- '사랑의 집짓기' 등 사회공헌활동 지속, 저돌적이미지에서 섬세한 문화로의 변신도 -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작년 12월 경기도 용인시 김량장동에 사랑의 집 1호를 완공, 용인시에 기증했다. 이곳은 독거 노인 34명의보금자리가됐고, 북카페와도서관, 다목적실등이들어선복지당은지역주민들을위한문화공간으로자리잡았다. 기피시설이던 노인 시설을 지역 주민과 함께 호흡하며 나누는장소로변모시킴으로써사회공헌 사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을 이끌어냈다. 건단련은 내년까지인천강화군, 충북 제천시, 전남 장성군에도 사랑의 집을 지어 자치단체에 기증하고 포항에서도 3차 사업을전개할계획이다.

작년 말 경기도 고양시 행주외동 샘터마을에서도무의탁타매노인들에게의미있는일이 있었다. 자금난으로 중단됐던 샘터마을 복지센터를 금호건설이 임직원 성금 8,00만원과 회사지원금 2억 2,000만원을 들여완공함에따라무의탁노인들의입주가

시작된것이다.

어려움 속에서도 이웃사랑 실천

최근 건설업체들은 대형 사고와 담합, 부정부패등부정적이미지에서벗어나투명·윤리 산업으로의 인식 전환을 꾀하고 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와 분양가상한제확대등으로유례없는어려움을겪으면서도다양한사회공헌활동을통해이미지를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다. 실제로 건설기업들은장학사업은물론건설현장주변의지역사회공헌, 소외이웃지원, 환경정화운동 등 일회성 구호 활동에서 벗어나 지속적인이웃사랑을실천하고있다.

대우건설의 아름다운 사회봉사단이나 금호건설의어울림자원봉사단등은최고경영자 직속의 자원 봉사 전담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대건설은 나눔의 정이라는 구호 아래 전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대림산업도 행복, 소망, 문화, 사랑, 맑음 등 5가지 분야의 나눔 활동을 벌이고 있다. 삼성건설의 해비타트 운동이나 건설단체총연합회가벌이는사랑의집짓기등건설산업의특성을살린사회공헌사업도다양하게전개되고있다.

물류 혁명·관광 자원화 이끌어

지금 부산에서는 부산 남항을 가로질러 영선동과암남동을잇는남향대교건설이한창이다. 공정률이90%에육박하며내년6월 완공이 목표다. 남향대교 외에도 영도구 청학동 남구 감만동 간의 북향대교, 사하구 장림동 강서구 명지동 간의 명지대교, 강서구 녹산공단 가덕도 간의 가덕대교, 경남 거제시와부산강서구가덕도를 잇는 부산 거제간 연결 도로 등 5개 초대형 교량 및연결도로, 터널이부산시민들의기대속에건설되고있다. 이미완공된바다위교량

은광안대교, 신호대교, 부산대교, 영도대교 등으로 건설 중인 5개 교량·연결 도로 등이 개통되면 부산 생활권이 거제까지 단숨에 넓혀지는 등 부산·경남 지역의 생활여건이 획기적으로 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부산해안선을 따라 환상방사형의 해안 순환도로망이 갖춰져 2012년까지 순차적으로 개통하는 부산신항과 기존 북항을 연결하게 된다. 이는 부산항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물류·운송의 혁신으로 이어지고 해양관광자원화도 이뤄져 지역 경제에 크게 기여하게 될 전망이다.

국내외에 새로 쓰는 건설 역사

부산 해운대의 광안대교는 국내 최장(最長) 현수교다. 부산북항을 가로지르는 북항대교는 수면에서 상판까지 높이가 60m로 국내 해상 다리 가운데 가장 높다. 다리 아래로 대형 컨테이너선이 다녀야 하기 때문인데 높이 7.5m인 영도대교보다 8배가 넘는 높이다. 부산 거제간 연결도로 가운데 가덕도와 중죽도를 잇는 3.7km는 국내 최초의 침매 터널(구조물을 육지에서 만들어 바다 밑바닥에 가라앉혀 만드는 터널)로 건설되고 있으며, 중죽도와 거제를 연결하는 사장교는 국내 최초의 3주탑 교량이다. 남항대교 양 끝에는 국내 처음으로 바다 위 다리 전망대가 설치되고 영도대교는 예전과 같이 다리 상판을 들어올렸다 내렸다 하는 도개식(跳開式)으로 건설되는데 이 또한 국내 유일이다.

해외에서는 삼성물산이 2009년 완공을 목표로 두바이에 짓고 있는 버즈 두바이가 세계 최고 높이 건축물 기록을 연달아 갈아치우고 있다. 지난 4월 8일(현지시간) 버즈 두바이 착공 38개월 만에 침탑 공사 높이가 630m를 돌파함으로써 세계 최고 구조물 기록을 세웠다. 628.8m로 기존 세계 최고 높이인 미국 노스다코타주의 방송 송신탑 'KVLT-T'를 앞선 것이다. 이에

앞서 140층 골조 공사를 끝낸 작년 7월에는 건물 높이가 512m에 달해 그동안 대만의 TFC109를 가지고 있던 508m를 4m 경신했다.

3D 직종 '노가다'라는 인식

건설문화는 건설인의 사고와 행동, 그리고 건설 활동을 통한 생산물을 통해 나타나고 생산 활동에서 서로 존하는 상생문화에 기반을 두고 만들어진다. 그런데 1990년대 이후 건설산업은 국민 경제에 기여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전후방 산업과의 연관 효과도 약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산업이 부가가치와 고용 창출 효과 등 국가 경제에 서 차지하는 영향력이 점차 축소되고 있다. 이처럼 건설산업의 사회적 위상이 위축되면 서 문화적인 위기감도 커졌다.

무엇보다 직업적으로 볼 때 건설산업은 '사양 산업에 저급한 하류 직업'이라는 인식 아래 3D 직종으로 전락해 버렸다. 흔히 노가다라고 폄하하는 저변에는 이런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노가다라는 용어에 함축됐듯이 우리 건설산업은 적당주의와 한 건주의, 여기서 비롯된 부실공사와 부정부패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각인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업역 이기주의가 위기 초래

이러한 건설산업의 위기는 1990년대 시장 개방에 대한 두려움에서 시작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와 건설업계는 시장 개방의 후유증을 두려워한 나머지 건설시장 보호 내지 방어에만 급급했고 이는 속칭 '로또식' 입찰제도를 만들어냈다. 면허제도 역시 칸막이식 업역 구조를 형성, 선진형으로 발전하는 데 실패했으며, 오히려 무자격 페이퍼 컴퍼니를 양산하는 등 시장 질서를 더욱 혼탁하게 만들었다.

1990년대 진행된 건설시장 개방은 우리 건설산업 문화를 한 단계 끌어올릴 기회였

지만 결국은 실패로 돌아가고 만 것이다. 특히, 1990년대에 연달아 터진 대형 건설 재해와 부실 시공은 건설산업에 대한 국민적 이미지를 극도로 악화시켰으며 IMF 금융 위기는 건설 기업들로 하여금 유례 없는 위기를 경험케 했다. 또한, 3D 업종으로 전락한 건설 현장에는 점차 숙련된 청년 인력이나라지고 이제는 고령 기술자와 외국인 근로자들이 현장을 채우고 있다.

국민 생활 변혁을 선도하는 산업으로

민주화와 시장 개방, 연이은 대형 건설 재해, 그리고 IMF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건설 기업은 기존의 경영 방식으로 더 이상 안정적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1990년대 이후 사회 문화와 건설 산업 환경의 변화로 새로운 건설 문화를 형성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개별 건설 기업이나 건설 단체들이 전개하는 사회 봉사, 사회 공헌 활동이 폭넓고 다양해졌으며 건설 기업의 문화 마케팅은 종전 저돌적이고 딱딱한 이미지를 바꾸고 있다. 또한, 지역 사회 발전의 근간이 되는 SOC 건설을 통해 국민 생활과 지역사회 문화, 물류·유통의 혁신을 선도하면서 대한민국 건설사에 신기원을 이뤘나가고 있다.

무조건 '하면 된다'라는 문화가 '돌다리도 두드리는' 섬세한 문화로, '상명하달'의 군사 문화가 '협의하는' 문화로, '빨리빨리' 문화가 '품질과 안전 우선'의 문화로 바뀌고 있다. 선도 기업들을 중심으로 기술력 중심의 경영, 브랜드를 접목한 경영, 화합의 경영 문화를 새로 대두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제 건설산업은 위축된 이미지를 회복하는 단순한 차원이 아니라 국민의 생활과 문화



의 변혁을 이끄는 산업으로의 다양한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왕영록
건설경제산업2팀장